

건축문화 **사라향**

Vol.009 10. Aug 2010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 · 전남 · 전북건축사회 News 2010.08

009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전주한옥마을
천년전주 온고을
조선왕조의 분향 풍패지향
豐沛之鄉

태양의 도시 지평선 **솔라도**

The original place of Joseon

The original place of Joseon

전주한옥마을

미래천년

도시만들기 새만금

豐沛之鄉

全州

전주한옥마을

미래천년

도시만들기 새만금

The original place of Joseon

미래천년 도시만들기 새만금

태양의 도시 지평선 **솔라도**

기분좋은 **상상**

건축시인으로 살기

The original place of Joseon

全州

조선왕조의 분향 풍패지향

시론

"더위야 물렀거라!" 옛 사람들의 피서 백태_조상열

일본 요코하마(横浜)의 새로운 도시창조 활동을 돌아보며_남송진

건축과 도시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_이명규

문화유산

언덕을 감도는 골목과 고실길의 속살_송인동

전통건축

THE LOST RULER 잃어버린 çat_박강철

그리스 터키 여행기

터키의 건축문화 탐방을 다녀와서_이순미

건축도시시책

민선 5기, 광주·전남·전북 자치단체장 정책을 알아보다.

설계경기

이순신 명랑대첩 승전광장, 강진 시문학파 기념관

대학소개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더위야 물렸거라!” 옛 사람들의 피서 백태



조상열 대표
대동문화재단 / 문학박사

절기상으로는 입추가 지났고, 이어 말복도 지났다. 입추(立秋)는 가을의 찬 기운이 여름의 더운 기운 위로 올라선다고 해서 쓰는 말. 그러나 불볕 연천(炎天)은 정작 이때부터 절정으로

기승을 부리고, 도회지 사람들은 백태만상의 피서 방법으로 여름을 나고자 한다. 특히 요즘처럼 에어컨이 없던 옛 시절, 그 때 사람들의 다양한 피서 또한 매우 흥미롭다. 그 중 몇 가지를 슬그머니 엿보는 것도 잠시나마 피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단지도사라는 당나라의 철학자는 조그마한 단지 그릇을 집삼아 살았다 해서 '단지'라고 불렸다. 마치 조선후기에 불교는 물론, 차(茶)와 서화(書畵) 발전에 불후의 족적을 남긴 초의선사가 띠 풀로 짠 옷을 입고 산다 해서 초의(草衣)라 했고, 나뭇가지 하나로 지은 집에서 살겠다는 뜻으로 대홍사에 일지암(一丈庵)이란 이름의 암자를 짓고 산 것처럼 매우 검소했던 사람이었던 같다.

단지도사는 북쪽 만리 빙원, 백적 빙하에 사는 수달의 털을 깎아 옷을 짜 입었는데, 오직 한 벌로 여름과 겨울을 살면서도 춥네덥네 불만을 하지 않았다. 마침 지나던 임금의 그에게 만금을 줄 테니 옷을 팔라고 하자, 그는 임금의 용상(龍床)이 아니면 바꾸지 않겠다며 사양했다. 그의 여유만만하면서도 당찬 행동이 답답한 삶에 피든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잠깐이나마 시원스럽게 한다.

또 당나라의 왕원보라는 부자집에는 용피선(龍皮扇)이란 가족부채가 있었다. 삼복에 손님 앞에 부채를 꺼내 놓으면 냉풍(冷風)이 저절로 일어나, 일각이 못 되어 한기를 느껴 닭살이 생길 정도였다고 한다. 원래 이 부채는 당에 유학 온 신라 승려들이 들여간 것으로 동해안에서 나는 특수 어피로 만든 부채였다. 예부터 우리나라에도 피서용 특수부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나라 왕궁인 여름궁에는 양전(涼殿)이라는 피서 전각이 있었다고 한다. 임금 용상 뒤에서는 수격선차라는 물레방아 선풍기를 돌리고, 사방에는 얼음으로 빙산을 깎아 세워, 그 얼음산에 폭포와 얼음 물안개를 뿜어대게 했다. 생각만 해도 더위가 십리나 물러간 듯 하다.

당나라 현종의 총애를 받던 양귀비에게는 양귀충이라는 오라비가 있었다. 그는 누이 양귀비의 세도를 업고 임금을 능가하는 호화사치를 부렸는데 살병풍, 곧 육병풍(肉屏風)을 두르고 피서를 할 정도였다. 혹서기에 빙병(氷屏)이라 하여 얼음판으로 병풍을 만들어 산수화와 십장생을 조각해 두르고 잔치를 벌였다. 그러다가 실내 온도가 너무 차갑다 싶으면 비첩(婢妾)들 가운데 살이 찐 여자들만 십여 명을 골라 옷을 벗기고 둘러 앉혀 그녀들의 체온으로 냉기를 중화시켰다고 하니, 그의 사치 정도를 짐작 할만하다. 물론 양귀비도 오라비에 지지 않았다. 실제로 양귀비는 요즘 생각하는 얼짱, 몸짱 미인이 아닌 풍보 비만이었다. 약간의 더위도 참지 못했던 양귀비는 대실산 눈 속에서 자라는 누에고치 실로 짠 빙(氷)잠옷을 입고 더위를 물리쳤다고 한다. 빙잠옷을 입고 있으면 더위가 삼척 앞에서 물러났다고 하니, 여름 선물로는 양귀비 빙잠 옷보다 더한 것은 없을 듯 싶다.

일본 요코하마(横浜)의 새로운 도시창조 활동을 돌아보며



남승진 교수
동아인재대학 건축과

요코하마(横浜)는 1960년대 말부터 매력적인 도시디자인에 대한 활동이 시작되었고 항구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매력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해 온 도시이기도 하다. 요코하마의 이러한 도시만들기 활동은 먼저 요코하마의 독자성과 자립성을 구축하고 새로운 도시의 활력을 창출하

는 것과 도쿄(東京)에서 약 30km의 근접한 도시로서 도쿄의 영향하의 위성도시가 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도시만들기의 6대 사업 중 하나인 도심부 강화사업이 보행자공간의 재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녹나무 광장, 마차도, 이세자키 물, 모토마찌), 1980년대부터는 역사자원을 활용한 도시만들기(개항자료관의 보존활용, 가와사끼은행 외벽보존 등)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미나토미라이21, 적벽돌창고 재생사업, 요코하마 국제여객터미널 국제환상공모 등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매력적이고 창조적인 요코하마 만들기 전념하게 된다. 요코하마의 새로운 도시만들기 정책은 먼저 도심부재생사업, 매립정비사업, 고속도로건설사업, 베이브릿지 건설사업 등 다양한 공적 단체에 의한 기반시설의 정비와 주택지개발시 도로, 공원, 학교용지 등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양질의 개발을 도모하는 다양한 규제 유도시스템의 도입, 또 요코하마다운 매력적인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971년에 도시디자인전문팀을 구성하여 각 지구마다의 디자인 이념과 기획을 조정하고 제안하기도 했다. 도시디자인 활동은 이 시기에 일본의 어느 도시도 시행하지 않았던 요코하마의 독자적인 활동이었고 40여 년간의 도시디자인전문팀의 활동 결과로 매력적인 도심경관이 창출되었다.

이 외에도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공공시설의 디자인향상을 위한 관리,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의 운용에 의한 지구마다의 경관 연출, 역사적 자산의 보존활용 등의 실험적 착수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요코하마의 도시만들기 활동은 처음부터 순조롭게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수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공무원, 연구자, 시민단체, 시민 등)에 의해 지금의 요코하마 도시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지금의 요코하마를 보기 위해 한 해 방문객의 수가 약 1,00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우리 광주 도시는 이 요코하마 도시만들기 사례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광주 도시만들기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미나토미라이21지구
쇼핑센터로 재생된 적벽돌창고



은행건축물의 파사드를 복원한 신구가 조화된 건축물

아름다운 도시 광주를
건축문화사랑과 함께 만듭니다.



건축사사무소 서로

건축사 정광민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4-93 TEL.(062)512-2125

6.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여섯 번째 이야기 - 캐나다의 밴쿠버

이명규 교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 첫번째 이야기 - 도시(City)
(2010년 3월호에 기재)
2. 두번째 이야기 - 광주의 공간발달사
(2010년 4월호에 기재)
3. 세번째 이야기 - 광주의 시가지계획
(2010년 5월호에 기재)
4. 네번째 이야기 - 싱가포르
(2010년 6월호에 기재)
5. 다섯번째 이야기 - 브라질의 '푸리피바'
(2010년 7월호에 기재)

살기 좋은 도시 : 밴쿠버(Vancouver)

밴쿠버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동계올림픽 여자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일본의 아사다마오 선수를 큰 점수 차로 이겼고 세계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도시학자에게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유럽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제일 좋은 점수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미국의 건설업체인 머서 인력개발컨설팅에서 매년 발표하는 '살의 질조사서에서 3위에 랭크 하였던다는 점이다. 유럽의 도시들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좋은 환경조건을 갖고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유럽권 도시에서 항상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는 밴쿠버가 거의 유일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한때 국제기관에서 밴쿠버를 배우고자 연구를 추진하였고 필자도 함께 방문하여 도시 연구를 할 기회를 가졌다.

좋은 환경과 관리 정책 : 공원과 해변가

밴쿠버를 한 번이라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느끼겠지만, 밴쿠버는 좋은 조건의 환경으로 둘러 싸여 있음을 쉽게 알게 된다. 도시 내에는 캐나다에서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스탠리공원이 있어 도시 내 허파로서의 역할과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바닷가에는 수많은 요트와 해안가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밴쿠버는 이런 환경을 그냥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스탠리공원의 경우 공원으로서는 보존할 것은 엄격히 보존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면서 시민들이 공원을 좋아하고 알게 함으로써 함께 공원을 만들어가고 가꾸어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탠리공원에서 바라다 본 라이온스 게이트 브리지(Lions Gate Bridge)는 캐나다에서 제일 긴 다리이다. 다리 건너편에는 고급 주택지로 구성되어 있다.



밴쿠버의 해안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시민들

해안가도 시민들이 휴식하고 조깅 등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오히려 해안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그 중요성을 일깨우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좋은 환경은 그냥 갖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정책이 아닌가 한다.

시민참여와 특색있는 제도 : 스튜워드십(stewardship)

밴쿠버는 1980년대부터 활기찬 경제개발을 통해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도시정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밴쿠버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시민들에게 투표를 통해 올림픽을 개최여부를 물어 올림픽을 추진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시장부가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는 매우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아마도 밴쿠버가 안고 있는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구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아시아와의 경제교류 등 캐나다 동부도시들과 다른 사회적 경제적 구조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만들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본다.

중요한 점은 점점 증가하는 아시아인종을 위해 커뮤니티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중국어 등 소수인종을 위한 의견수렴 등 많은 점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도시에 대하여 커뮤니티 단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계획패턴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밀로부터의 계획수립이라는 말 그대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부시장이 주관하는 위원회에 소수인종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건물이나 시설들을 결정하는 경우 부시장이 주관하는 위원회에 소수인종대표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공공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인 스튜워드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튜워드십제도는 시에서 개발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전문가, 시민 등 관련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여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행정 및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원천적으로 개발 및 계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와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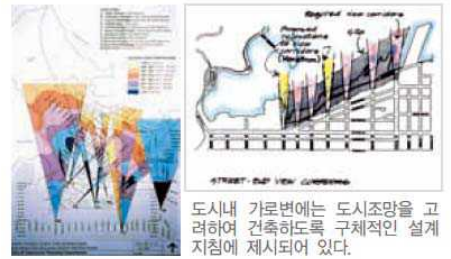
강력한 비전과 협력적 개발전략

밴쿠버는 도심활성화를 위해 도심에 주거시설을 유치하면서 1층에는 상가거리로 조성하는 복합용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가거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의 정자거리 일명 카페거리가 그 예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밴쿠버의 도심지역에는 많은 아파트건물들이 오피스건물들과 함께 잘 어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밴쿠버는 도심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모형을 제시하고 시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의 가로수길에는 도시조망을 해치지 않게 개발을 유도하고 해안가에는 국제적 규모의 해안관광이 가능하도록 크루즈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밴쿠버의 도심활성화를 위해 만든 개발모형



도시내 가로변에는 도시조망을 고려하여 건축하도록 구체적인 설계 지침에 제시되어 있다.



도심내 아파트건물의 1층에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며 도심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도시전체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였다. 아마도 밴쿠버가 추진하는 다인종시민을 참여시켜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시장부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협력적인 관계 속에 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았는가 평가해 본다. 여기에 원래부터 갖고 있던 좋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든 점이 또한 중요하다.



밴쿠버의 중심시가지에 접하고 있는 해안가부두시설은 대형 크루즈선박이 접안 가능하다.



밴쿠버의 안내지도로서 우리의 동단위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도시지도도 만들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jm7192@paran.com

건축사사무소 시명

건축사 차은영

전화 062)362-0544
팩스 062)361-1105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304-1번지

양림동이야기(3-2)

3. 언덕을 감도는 길목과 고샅길의 속살

송인동 교수
호신대학교 역사문화자원본부장

- 1. 첫번째 이야기 - 빗고을의 아침을 깨우는 언덕 양림산 (2010년 2월호에 게재)
- 2. 두번째 이야기 - 강변마을의 노래와 함성 (2010년 4월호에 게재)
- 3. 세번째 이야기 - 언덕을 감도는 길목과 고샅길의 속살 (3-1) (2010년 7월호에 게재)

양림동에 산재한 문화자원과 나병 진료 병실인 가마터

서서평지에서 오거리를 거쳐 수피아로 향하는 길 주변에는 양림동의 옛길답게 독립운동가 김기권의 가옥터, 김재훈 시인 가옥, 송일학교 우물터, 106년이 된 양림교회, 오기원기념각, 기독교병원(옛 제중병원), 수피아, 어비슨농업학교터 등 여러 문화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광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건물이 있는 양림교회(통합)의 뒷마당 끝은 일제가 선교부의 땅을 징발, 건축한 강제동원용 노무지도원훈련소 건물들이 있었다. 광복 후 이곳은 광주YMCA에 불하되어 Y 프로그램과 함께 일제 강점기 어비슨(또는 에비슨, Avison)이 힘썼던 덴마크식 농촌부흥운동을 정인세 등이 다시 시도하였다. 여수순천14연대반란사건과 6.25 와중에 '맹발의 성자라 불리우는 이현필과 그 제자들 곧 동광원 식구들이 이 목조 건물에서 전쟁고 아들을 많게는 600여명 넘게 돌보기도 하였다.



이현필의 동광원사람들이 돌본 양림동의 고아원



양림산 가마터

수피아로 가는 길을 걸어가다 기독교병원 못미처서 양림산 자락에는 우월순사택을 지을 때 썼던 벽돌 굽던 가마터가 있었다. 1909년 오기원(또는 오웬) 선교사가 희생적인 활동 끝에 쓰러졌다. 목포에 있던 내과의사 포사이트 선교사가 긴급 초청되어 광주로 오던 중 길가에서 죽어가는 여자 나환자를 발견, 자기 말에 태우고 와서 제중병원에 입원을 시켰으나 다른 입원환자들이 나병이 전염성이 있고 하늘이 내린 벌이라 생각하고 반대하였다. 그 때 이미 오기원은 별세하였다. 오기원 부인인 여사 화이팅은 남편을 잃은 충격과 만삭의 몸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나환자를 위한 특별 병실을 가마터 안에 조성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나병(한센병) 진료 병실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곳에서 시작된 나병퇴치 사업은 우월순, 최홍중, 서서평 등에 의해 광주나병원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여수 애양원과 소록도 등의 시설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기원 부인 화이팅은 남편과 사별 후에도 딸들과 계속 이 땅에 남아 선교와 봉사 사역을 하다가 큰딸과 사

위가 3.1만세운동에 연루되어 강제추방을 당하자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

역사적 아픔 - 3.1만세운동과 5.18의 "죽음의 행진"

1911년 세워진 수피아출은 호남 여성교육의 요람이다. 지하는 별도로 외관상 3층인 이 건물은 3.1만세운동 때 박애선생과 학생들이 숨죽이며 비밀리에 태극기를 만든 곳이다. 2009년에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한 전시장으로 활용되었다. 수피아출 북쪽 건너편은 양림산 숲속에 아가지기한 오솔길들이 숨어있으며 백년에서 4백년이 넘는 울창한 수목들이 즐비하다. 수피아출 동남쪽 언덕에 자리한 배유지기념예배당을 중심으로 이 양림산 지역은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대학생성경읽기회(U.B.F.), 예수전도단(YWAM), 광주지역의 기드온 운동, 대학캠퍼스선교회(UCM) 등 굵직한 조직들이 태동된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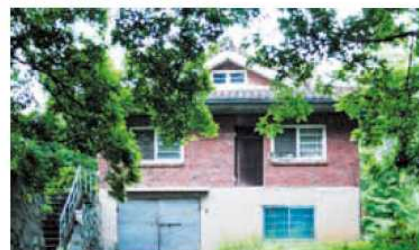
수피아출

이 오솔길을 따라 인도아 선교사 사택, 부명관 선교사 사택, 허철선 선교사 사택,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 원요한 선교사 사택, 국내 치과외술을 한 단계 높였던 우수만 선교사 사택, 나병환자들의 아버지 우월순 선교사 사택 등이 남아있다.

기독교병원 원목이던 허철선 선교사는 1980년 광주의 참상을 목격하고 진실을 부인하고 함께 국내외에 증언하다가 공황에서 신군부에게 자료를 압수당하는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역사저술가이었던 부인은 "우리 병원만 보더라도 두 시간 안에 99명의 부상자들과 14명의 사망자들이 들어왔다. 부상자 중에는 두 다리에 총을 맞은 9살 남자아이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부상자들이 급속히 늘어나 혈액이 바닥나자 시민들의 헌혈행렬이 길게 늘어섰다. 예고 3학년이던 박궁희양도 5월 21일 기독교병원을 찾아와 헌혈을 하고 가다 얼마 후 목부, 허리, 머리에 총을 맞아 시신이 되어 다시 기독교병원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를 알아본 의료진들이 가슴 아파하였다.

커다란 호두나무를 사이에 두고 우월순 사택과 나란히 미국 남침례교 피터슨 선교사 사택이 서있었다. 구휼식품으로서 양림산의 호두나무들은 동네 아이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곤 하였다.

역사가이기도 한 피터슨 선교사는 도심이 굵어보이던 사택을 중심으로 자신이 5.18 당시 목격한 것들을 기록하였는데, 계엄군 발포가 5월 21일이 아니라 20일부터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광주 상공의 군용 헬기들이 지상의 시민들을 향하여 여러 차례 기총소사를



현들리목사 사택

하였다 등 충격적인 증언을 하였다. 양림 출신의 인사들은 신군부의 폭력에 저항해서 일어난 시민, 학생들과 계엄군 사이에서 끝까지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힘썼다. 노회관 장로, 구교성 청년, 송화성 권사, 안성례 장로, 명노근 장로, 이성학 장로, 이영생 집사, 은명기 목사, 조원근 목사, 정익섭 장로, 김천배 목사, 백영흠 목사, 문용동 전도사, 조아라 장로, 강신석 목사 등등이 그들이다. 수습위원으로 나선 몇몇은 총을 든 학생들을 설득하고 동시에 계엄군과의 협상에도 나섰다. 5월 26일 수습위원을 중심으로 17인이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약 4킬로를 걸어 계엄군 앞까지 행진하여 어떤 이는 탱크 앞에 눕기도 하며 총돌을 막기도 하였다. 와신에서는 이를 '죽음의 행진'이라 하였다. 평화를 위한 이들의 뜻을 기려서 2010년 5월에 '양림의 오월'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진전이 열렸다.



양림의 오월사진전

다양한 순례객들과 양림동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려는 노력

양림산 선교사묘원에서 시작된 선교의 역사는 나환자 구제, 결핵 구제, 빈민 구제 등 이 지역의 독특한 대규모 공동체 운동들로 전개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 반대가 미국 남장로교를 중심으로 학교의 폐교까지 불사할 정도로 단호하였다. 양림 출신 인사들은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독립운동으로 승화되도록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6.25 등 근대 역사 속에서 한국 개신교 순교자의 8할 이상에 호남 지역에서 순교하였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의 뿌리인 양림산은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다양한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사진 속의 선교사묘원의 외국인 들은 서울, 부산 등 각지에서 온 영어 원어민 교사 또는 교수들이다.



외국인 탐방객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양림동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 드렸으나 양림의 이야기들은 아직도 발굴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야기들의 나눔과 저장을 위하여 1998년부터 양림동 마을 가꾸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매년 봄, 가을 역사의 숲 가꾸기, 김현승 시비건립, 담장허물기, 3.1만세운동재현, 섬김과 나눔이 있는 성탄절 페스티벌, 한중우선지축제 등이 진행되어 왔다. 2007년과 2009년 광주근대역사문화활동가 과정이 개설되어 지역민의 호응을 받았으며 배출된 50여 명의 활동가들이 문화해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2010년에는 심화과정이 개설되어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또한 2007년부터는 60여 곳의 문화자원 중 20여 곳을 선정, 문화지도도를 제작하였으며 2009년에는 사라지기 쉬운 문화자원들을 지도에 더 표시하여 디자인비엔날레 때 보급하였다. 2010년에는 더 개정된 지도가 보급되었다. 양림의 대부분의 문화자원들은 사유재산이어서 부득이한 상황이 닥치면 멸실의 위험에 노출되곤 하기 때문이다. 양림의 이야기들이 강한 인바운드(inbound) 순례 관광의 요소를 담고 있어서 자원들이 보존되어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야 하지만 현 소유자들의 행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원이 변형되거나 멸실에 이르게 된다. 이는 마을 단위 이상의 차원에서 중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의 사진출처 : CFK, 광주기독교병원, 광주YMCA, 송인동 등) is@ntus.ac.kr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문화유산'을 연재해 주신 호남신학대학교 역사문화자원본부장 송인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THE LOST RULER 잃어버린 잣대

박강철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지난 호(7월호)에는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전담임 교수의 "전남지방의 누정(樓亭)과 원림(園林)"이란 주제로 전남지방 전통건축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는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박강철 교수의 "THE LOST RULER 잃어버린 잣대"란 주제로 전통건축의 또 다른 의미를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문화의 잣대

원래 문화란 제각기 자연환경에 적응한 고유한 응전 일진데 자기의 토착 문화보다 서구문화가 더 앞선 단계라는 생각이 아시아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반화된 때가 있었다. 근대사의 과정에서 볼 때 우리 역시 근대화란 문화 변용은 외래문화를 주도할 지식층의 부재와 문화적 환경의 혼란 속에 있었다. 이러한 외래 문화의 충격으로부터 우리문화의 가치창조 작업이 자율성에 입각한 자연 발생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의 정형을 격하하는 커다란 착오를 범하였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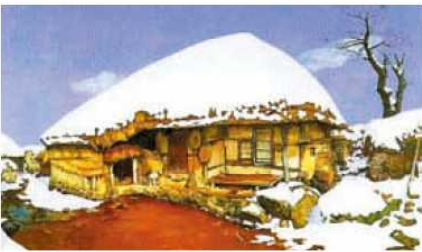
이러한 인식의 한계는 자신과 우리문화의 고유한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객관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식의 한계를 가져오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겹질들, 특히 어중잡은 현대라는 의식과 서구적 지식에의 도취로 인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의식의 방향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기 때문이다.²⁾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의 자존적 자아를 회복할 우리문화의 잣대로 살아날 것이다.

단아(端雅)함과 넉넉함 그리고 조화로움

한국 사람은 넘치기보다 모자란 듯한 생활의 잣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단아(端雅)한 것을 좋아한다. 단아라는 것은 비록 그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공작아 느껴지는 그윽한 큰 맛이 있다. 마치 젓갈 맛에서 바다를 느끼듯 이러한 맛은 우리의 풍토 속에서 자라온 것으로 우리의 겸허한 생활 태도에서도 느낄 수 있다. 초가삼간은 작고 비좁지만 '달 한 칸, 청풍 한 칸, 나한 칸'의 구성을 보면 자연과 하나가 되어버린 크고 아름다운 생활을 느끼게 한다. 오늘도 작은 것이 더 아름답다는 말은 새삼 의미가 있다. 자연과 환경이 위기에 처한 이때 단아한 생활의 검소와 청빈은 참으로 아름다운 생활의 잣대이다.

우리에게는 넉넉함도 있다. 한국화의 여백처럼 붓 끝 따라 흘러내린 먹물이 하얀 여백으로 번질 때 자



한국인의 초가삼간 동지

꾸만 새롭게 생겨나는 여유와 융통성이 있다. 우리의 체구에 비하면 한복이 왜 그렇게 커야하는지를 모르는 서양인에게는 우리 옷은 기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말기 때 어느 서양인이 한복바지가 빨랫줄에 널린 모습과 풀밭에 이슬 맞기 위해 펄럭이는 모습을 보고 한국인의 작은 체격에 비해 너무나 큰 것에 깜짝 놀랐다. 아마도 저 정도면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속옷으로도 가능하고 동양에서 제일

큰 불상의 알몸도 감쌀 수 있다는 기록을 남겼다.³⁾

이와 같이 우리 옷의 풍성하고 넉넉함은 온을 위에서 이루어지는 좌식 주거 문화와 연루된 가능성 말고도 왜소하거나 변형된 중년이후의 인체를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넉넉하게 보이게 해주며, 입는 자의 마음에 여유와 넉넉함은 물론 제반행동을 우아하고 의연하게 해준다. 이 또한 우리의 고유한 문화의 잣대로 빛어진 넉넉함이다.

우리에게 또 조화로움이 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자연미라고 한다. 자연에 인공이 끼어서는 자연이 아니며 자연은 미추(美醜)이전의 세계라는 것이다. 20세기 초 일본의 민예학자 야나기(柳宗悅)는 범범(凡凡)하고 파란(波瀾) 없는 것, 꾸밈이 없는 것, 사심(私心)이 없는 것, 솔직한 것, 자연스러운 것, 뽀내지 않는 것이라고 한국 조형의 특징에 관한 견해를 피력했는가 하면, 한국의 전통조형정신이 잘 표현된 부분을 선(線)이라고 했다. "흐르는 것 같은 길게 끄는 그 곡선은 한없이 호소하는 마음의 상징이다..... 형(形)도 아니고 색(色)도 아니고, 선이야말로 그 정을 호소하는 가장 적절한 방편이다. 이 선의 비밀을 풀지 못하는 한 한국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다"⁴⁾ 고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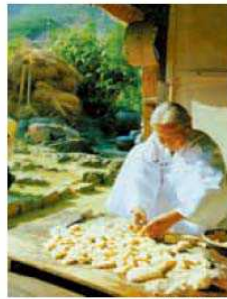
우리의 아름다움이 자연미라고 하는 것을 최수우도 한옥을 들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일본 건축에 눈익은 사람들은 한국 건축을 보고 무잡(蕪雜)하다고 흠을 본다. 그러함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세부 장식이나 그 외면에 있는 것이다. 외모의 조화 통일과 그리고 사우(四圍)의 풍광과 건축과의 연결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좀 떨어진 거리에서 하나의 시계 안에 넣어 봤을 때 거기에 묘한 해화(諧和-조화)를 일으키는 추녀의 곡선, 그 과정도 없이 침체도 없이 부드럽게 흐른 선의 아름다움이나....."⁵⁾ 같은 선상에서 한국미의 특성을 가리는 데 골몰했던 미술사학자 김원웅(1978)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한마디로 자연미라고 단언한다.

우리문화의 정형(定形)

예술은 생산성과의 관계보다 무한한 창의적 세계이다. 대체로 기능은 문명에, 창의성은 문화에 속한다고 하나 문명은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며 문화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내재된 사고방식과 사고의 물적 표출 같은데서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바로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조화로움의 극치인 자연미이다. 그래 우리의 정이 마음의 잣대가 되어 아름다운 선의 흐름으로 빛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의 단아하고 넉넉한 정서가 우리의 한옥에 더하고 뿔 수도 없는 자연미로 조화롭게 녹아난 것이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한 우리의 단아함과 넉넉함이나 조화로움이 그저 그렇게 생각도 고뇌도 없이 만들어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 수많은 시도 끝에 터득한 생활의 오묘한 이치에 따라 거르고 걸러서 얻어낸 정선된 문화의 정형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복의 멋



한국건축의 아름다움은 멀리서 시계(視界) 안에 넣어 볼 때 조화의 극치인 자연미인것을 알 수 있다.



경북월성 송동만시 가옥 서구식 선원주택

우리의 잣대로 진화된 건축(建築)

배움의 길에는 임(臨)-모(模)-방(倣)이란 단계적 과정이 있다고 한다. 남의 것을 보고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을 '임'이라고 하고, 남이 한 것을 약간 변용하는 것을 '모'라고 하며, 남에게 배운 것을 자신의 창의에 재구성하는 것을 '방'이라 한다.⁶⁾ 우리의 고유한 풍토와 정기와 정감이 빛은 우리 자신의 고유한 문화는 어디로 갔는가?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언 4:23)"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살아 있지만 죽은 것이나 같고 주인공세를 하나 사실은 노예나 다름이 없다⁷⁾란 말이다. 소중한 자신의 잣대를 잃어버린 것이다. 고유한 문화의 본질은 민족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규범과 도구가 중하고 이것들이 상호작용하여 우리문화의 본질을 유지케 한다. 이러한 연유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갈 선택된 정보를 조율하는 일이라면 건축은 우리 자신의 문화적 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율 활동의 하나이다. 이 일에 우리의 잣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후손을 위한 건전한 문화의 사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당의 멋



한국 마당의 자연스런 아름다움

gcpark@chosun.ac.kr

<인용문헌>
1) 고영복, 『현대사회학』, 범문사, 1995, p.63.
2)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p.33.
3) 임영미, 『배달 한민족, 우리옷의 멋』, 최정호(편), 『멋과 한국인의 삶』, 나남출판, 1997, p.270.
4) 김형국, 『한국 디자인에 대한 기대, 최정호(편), 『멋과 한국인의 삶』, 나남출판, P.406.
5) 김형국, 앞과 같은 책, p.406.
6) 김형국, 앞과 같은 책, p.401.
7)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p.67.

Ⅲ. 터키의 건축문화 탐방을 다녀와서

세번째 이야기 -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 에페소

이순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표

1. 첫번째 이야기 - 에피다우로스, 미케네, 올림피아 (2010년 6월호에 게재)
2. 두번째 이야기 - 델포이, 아테네 (2010년 7월호에 게재)

건축사 유럽여행 모임인 오군회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19일까지 10박 11일로 자중해 연안의 그리스와 터키의 건축 문화 탐방을 다녀왔다. 먼저 그리스의 건축문화를 2회에 걸쳐 소개하고 이어서 터키의 건축문화를 2회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그리스를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과 오히려~ 다시 와야지! 하는 다짐과 함께, 아시아와 유럽의 교량 역할을 하는 터키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는 터키를 향해 발길을 옮길 수 있었다.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 터키

터키에 도착하기 전에 잠깐 터키와 우리나라와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보자.

터키를 흔히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라고 한다. 이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도움을 주어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실은 터키와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터키의 역사적 근본은 고조선 이전의 주신 환웅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고구려시대에는 고구려의 한 부족으로 우리민족과 같이 생활 해 온 민족이다.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와 그 후속 국가들에 의해 만주 북쪽 그리고 지금의 몽고와 중앙아시아지역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의 터키에 정착하였다. 현재에도 이와 같은 역사를 터키인들은 자국의 역사서에서 배우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선택과 목적으로만 배울 수 있단니,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래서 터키는 자기네만 한국을 짝사랑한다며 아쉬워하기도 한다. 터키는 우리 고구려 민족과 동일하게 기마유목 민족으로 강인함이 넘쳐나며 민족 이동 경로에 있어서 때론 잔인하고 용맹한 투르크(터키의 중국식 그리고 영어식 발음) 전사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용맹성에 의해 천년 역사의 동로마 제국까지 멸망시키고 발칸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마침내 오스만 터키 제국을 건설 하였으며 전 아랍권과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지배하였다고 한다.

근세 들어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지금의 터키 영역으로 좁아졌지만, 터키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엄마를 "애미" 아빠를 "아빠"라 부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훨씬 우호적인 것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터키를 방문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슴 설레이는 일이기도 하다.

고대도시 히에라폴리스(Hierapolis)와 석회수의 파무칼레(Pamukale)

이스탄불 공항을 거쳐 이즈미르에서 터키의 하루 밤을 지냈다. 새벽에 들려오는 코란 기도소리는 청아한



히에라폴리스 원형극장

남자의 목소리로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어떤 힘을 갖고 있었으며 안정감을 주기까지 하였다. 히에라폴리스(Hierapolis)를 가기 위해서는 버스로 이동을 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아홉새! 가던 길에 터키의 큰 행사인 사이클경기로 인해 길가에서 약 3시간 가량을 꼼짝하지 못하고 집혀있는 신세가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도



히에라폴리스

착한 곳은 하얀색의 석회암산이 보이는 파무칼레(Pamukale). 우린 고대도시인 히에라폴리스를 먼저 보기위해 버스로 더 가야했다. 기원전 2세기경에 만들어진 히에라폴리스는 로마제국과 비잔틴제국때 번성했던 도시로 지금은 폐허로 남겨져 있다. 누군가 황성옛터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원형극장은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었으며, 학생들은 연극연습에 열중이었다. 현재도 이곳은 극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히에라폴리스를 산책 삼아 쪽 건다 보면 석관과 가족묘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 죽음도 삶의 일부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히에라폴리스를 지나니 로마제국때부터 석회수와 온천으로 유명한 파무칼레(Pamukale)를 만날 수 있었다.

목화솜을 살아 놓은 성처럼 보인다고 해서 목화성이라 부르기도 한다. 파무칼레는 일몰(日沒)이 유명한데, 우리 팀은 사이클경기 때문에 도로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석양의 파무칼레를 보게 되었다. 하얀 석회석에 비추는 붉은 석양빛은 하늘과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였다. 이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행운이었던 것이다. 온천수의 온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았으나 우린 신발을 벗고 들어가 하루의 여독을 풀어 석회수와 이국적인 정취에 빠졌다.



석양빛의 파무칼레

에페소 - 셀수스 도서관, 대원형극장, 아르테미스 신전

이즈미르의 남서쪽에 위치한 에페소는 항구도시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고대역사상 중요한 도시였다. 아르테미스(Artemis)여신(사냥,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을 숭상하였으며, 성 바오로와 성 요한의 활동으로 그리스도 시대였을 때도 예루살렘 다음의 도시였다. 이곳은 BC 7세기 BC 6세기가 최대 전성기로서, 인구 20만명이 거주하였으나 BC 6세기 후반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에페소의 거리

AD 12세기에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명동거리라 할 수 있는 에페소의 중심 거리는 상당히 질이 좋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다. 왼편에는 1층은 가게, 2층은 주거시설을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주상복합건물로 볼 수 있다. 오른쪽에는 잘 발달된 목욕탕과 공중화장실을 볼 수 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정치 및 사고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목욕탕의 경우 뜨겁게 달구어진 대리석에 물을 뿌려 증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공중화장실은 좌변기 형태이며 유료로 이용하였으며 겨울에는 노예들이 먼저 앉아서 돌의 온도를 높인 후 귀족들이 이용하였다고 한다.

친근감이 있는 건축물이 눈에 들어왔다. 다음 아닌 셀수스 도서관이다. 에페소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물로 율리우스 셀수스가 소 아시아주의 총독으로 114년에 70세의 나이로 죽게 되자 그의 딸 율리우스 아퀼라가 그의 아버지 셀수스를 기리기 위해 도서관을 건축하였다. 도서관의 정면 입구는 2층으로 지혜, 행운, 지식 그리고 선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4명의 여성들의 석상이 있다.



셀수스 도서관

도서관 내부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 소장되어 있던 수 천 권의 두루마리책을 보호하게 했다 한다. 세밀하고 아름다운 조각상과 기둥들은 그 당시의 위엄과 화려함을 엿 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도 고대 유물을 단지 박제화만 하지 않고 야외 리셉션장으로 아주 훌륭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과거의 역사적 장소를 존중하며 시간대를 함께 공유하며 현재를 만들어 가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에페소 대원형극장

아르카디아나 거리는 약 50킬로미터 보다 길게 느껴졌으며 이 거리는 항구와 대원형극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 길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으며, 양쪽에 상점가들로 형성되어 있었다 한다. 이 거리 끝에는 25,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원형극장이 있다. 연극과 아르테미스를 위한 축제에 이용되었다. 이 극장 역시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 극장의 규모를 보니 에페소의 규모를 다시 한번 짐작 할 수 있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의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은 처음에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의 협조로 건조되었는데, 그 후 BC 356년 방화로 소실된 후 재건되었다.

이오니아양식의 신전으로 기둥이 127개의 거대한 규모였다.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과 성 요한 대성당 건립을 위해 이 곳 기둥을 이용하였다. 현재는 기둥 한 개와 몇 개의 기단부분만 남아있는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민선 5기, 광주·전남·전북 자치단체장 정책을 알아보다.

지난 1995년 민선1기를 시작으로 올해 민선5기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했다. 이번 자치단체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히 펼쳐져 각 자치단체장이 제정한 정책 이행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건축문화사람에서는 건축도시시책 지면을 통해 건축을 비롯한 도시, 조경(녹지·환경), 교통, 문화와 관련된 3개 시도 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을 정리하였으며, 추후 인터뷰나 자료분석을 통해 각 자치단체장의 정책을 심층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김 완 주
전북도지사

- 출 생 : 1949년 5월 25일(전라북도 전주)
- 최종학력 : 전북대학교 대학원 명예박사
- 경 력 :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91~92년) 제32대 전라북도 도지사(06~10년) 제33대 전라북도 도지사(10년 07월~현재)

민선 4기에 이어 당선된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핵심공약을 보면 민선 4기의 주요정책이었던 새만금 사업을 중심으로 건축, 건설 및 일자리, 교통 등의 공약과 전북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여러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 ◆ **첨단산업 분야**
 -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재래시장 살리기 3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도심 활성화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 ◆ **농업혁신 분야**
 - 맛 체험 농촌관광마을과 지역특색 상징숲을 조성하겠다.
- ◆ **사회문화 분야**
 - 전통문화사업 광역화를 추진하고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지원하며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
- ◆ **지역 및 도시 환경분야**
 - 권역별 전략사업 협의체 구성과 동무권 균형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명품 혁신도시 건설,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역 지정 추진, 김제공항 건설, 익산 역세권 개발지원, 호남고속철도 건설,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동서횡단철도 건설계획 반영, 자기부상열차 사업 유치, 구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
- ◆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 새만금 수질보전 대책 추진과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물 재이용 추진체계 도입, 새만금개발청 설립, 새만금 랜드마크 조성, 새만금 선도사업 조기개발, 새만금·군산경자지역중점개발, 새만금 신항만 건설계획 반영 새만금 산업지구 개발, 새만금 관광지구 개발사업, 새만금-무주간 내륙횡단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만들겠다.

박 준 영
전남도지사

- 출 생 : 1946년 10월 21일(전라남도 영암)
- 최종학력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 경 력 : 중앙일보 편집국 부국장(96년)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 비서관 겸 대변인(99년) 제34대~제36대 전라남도 도지사(04~현재)

자치단체장으로 3선에 성공한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이라는 도정 방침을 세웠다. 박 지사의 핵심공약은 전남의 지형적인 특색을 살린 공약과 2010 여수세계박람회와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와 관련한 공약이 민선 4기의 핵심정책과 이어져 있다.

- ◆ **2010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및 SOC 확충**
 - 2010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관련 SOC 확충하여 국립해양과학관 건립과 해양도시 웰빙 숲을 조성하겠다.
-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본격 착수**
 -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개최하고 관광레저도시 영산체험홍보관을 건립하며 세계정원박람회 개최와 전남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
- ◆ **지역안배를 고려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
 - 무안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남악신도시 조성 및 유관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을 추진하겠다.
- ◆ **섬과 해안선,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 섬 관광자원화 사업추진과 숲이 있는 해안도로 조성, 갯벌 자원화 단지조성, 갯벌 도립공원 지정 추진, 갯벌 방문객센터 건립, 갯벌연구소 건립, 갯벌 휴양타운 조성,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 해양바이오 창업지원센터 건립, 해양자원 육종연구소 건립, 해양생물 산업단지 조성, 해양바이오 웰빙타운 조성, 게르마늄 것갈타운 조성, 천일염 명품화 및 세계문화유산 추진 등 섬과 해안선,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
- ◆ **아름다운 농어촌 행복마을 가꾸기 추진**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과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아름다운 농어촌 행복마을 가꾸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한옥 시범마을 등 농어촌 생활 개선 사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겠다.

강 운 태
광주시장

- 출 생 : 1949년 11월 15일(전라남도 화순)
- 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 경 력 : 제47대 농림수산부 장관(95~96년) 제62대 내무부 장관(97년), 제16대, 제8대 국회의원 제19대(94년), 제11대 광주광역시 시장(10년 7월~현재)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5기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에서 만든 문화와 상품, 도시 경영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의 모델이 되는 창조적 거점도시 건설을 꿈꾸며 광주 발전을 위한 20개 핵심 공약을 내놓았으며, 그중 건축을 비롯한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다.

- ◆ **문화투자진흥자구를 지정 활용하여 문화산업 육성**
 - 문화수도의 핵심사업으로 옛 전남도청 주변과 사직공원, 송암공단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투자진흥자구를 지정 활용하여 문화산업을 500개 이상 집중적으로 유치 육성하겠다.
- ◆ **시민이 함께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조성**
 -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시기를 2013년까지 앞당기고, 문화창조의 중심축으로 개발해 세계적인 명품공간으로 조성하겠다.
-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 보호**
 -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관광과 문화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이 공존공영하도록 하겠다.
- ◆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 재생사업 추진**
 -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이 되도록 문화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진 도심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 ◆ **대중교통체계 및 광역교통망 확충**
 -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정착시키고 영업용택시 총량제를 실시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체계로 발전시키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세게인이 찾기 쉬운 국제도시로 바꾸어 나가겠다.
- ◆ **무등산 보호 및 친수·레저공간 확충**
 - 광주의 랜드마크인 무등산을 보존·보호하고 광주천과 영산강, 황룡강, 극락강을 시민들의 친수 공간으로 만들어 관광 레저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그린블루시티로 바꾸어 나가겠다.

한길을 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인간적인 설계
- 설계제한 모형제작
- 참된 감리
- 감동적인 시공
- 정직한 법원감정



한샘 건축사사무소
(주)한샘종합토건

건축사 최경양/ 대표이사 최옥선
광주시 북구 중흥동 644-22번지 3층
TEL. (062)526-4414, 5 Fax. 524-4415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80번지 일원에 들어설 "이순신 명량대첩 승전광장 조성" 설계경기 공모결과 (주)그림포에이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안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연면적 17,104.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명량대첩의 흔적을 간직한 현장에 역사와 문화를 담는다는 목표로 '물의 칼'이라는 컨셉 아래 이순신 장군의 강인함과 역동성을 상징적인 형태로써 인식시키고 진도와 해남 사이에 흐르는 울돌목, 그곳을 지켜보는 망금산의 장소성과 13척의 배로 133척의 적을 격파한 명량대첩의 역사성을 재현하였다.

이순신 명량대첩 승전광장 조성 설계공모



▲ 전체 조감도

당선작

(주)그림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박동준 건축사

대지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80일 일원
 대지면적 : 17,104.00㎡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유원지, 관광지
 연 면 적 : 19,77.79㎡
 건축면적 : 643.60㎡
 건 폐 율 : 3.76%
 층 수 : 지하 1층, 지상 7층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주요마감 : 징크패널, 밀러스텐, THK30 화강석, THK24 로이복층유리



▲ 배치도



▲ 수출입구 소감



▲ 선영대 실내 투시



▲ 성년 투시

강진군 강진읍 나성리 222-2번지 일원에 들어설 "강진 시문학파 기념관 건립" 설계경기 공모결과 (주)G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안은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연면적 616.74㎡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근대 순수시의 정을 언 시문학파의 문학적 의의를 되새기고, 지역 관람객들이 문화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지역대표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앞에서 즐길거리의 시문학 복합문화공간, 지속적 발전과 변화가 가능한 창조적 기념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즐거운 열린마당, 교육과 체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시문학세계 창조라는 디자인 개념으로 계획되었다.

강진 시문학파 기념관 건립 설계공모



▲ 전체 조감도

당선작

(주)G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윤석호 건축사

대지위치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나성리 222-2번지 일원
 대지면적 : 1,468.26㎡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보존지구, 최고 고도 지구(1층 6m)
 도로현황 : 서측 6m도로, 남측 8m도로
 연 면 적 : 616.74㎡
 건축면적 : 401.18㎡
 건 폐 율 : 3.76%
 용 적 율 : 25.16%
 층 수 : 지하 1층, 지상 1층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 : 고밀도목재패널, THK18 투명복층유리



▲ 배치도



▲ 입면도



▲ 실내 투시



▲ 실내 투시2

학교소개는 우수건축인 양성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하였으며, 먼저 4년제 또는 5년제 대학교의 건축전공을 광주·전남·전북 등 소재지별로 구분한 후 학교명의 한글 순서로 게재한다. 기사내용은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기 바란다. <편집자 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건축가 양성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도덕성과 실무적 능력을 갖춘 건축전문인력 양성

원광대학교 건축학과는 1977년 문리과대학 건축과로 출발하여 이듬해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로 변경하였다. 2002년도에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건축학부 내에 건축학전공(5년제)과 건축공학전공(4년제)을 분리 개설하였으며, 2010년도부터는 전공에 따른 건축교육의 전문화와 수준 높은 교육을 실현하고자 입학부터 학과를 완전 분리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통해 지역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건축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도덕대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MADE교육

건축학과 교육목표는 원광대학교가 추구하는 "도덕대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MADE(Moral based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교육을 추구한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기반으로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간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을 갖춘 건축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지향한다.

1. 환경성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인식 및 능력 배양
2. 공공성 : 사회의 구성원을 배려하는 공간 환경 구축 인식 및 능력 배양
3. 실용성 : 고객과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공간환경 구축 인식 및 능력 배양

이상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1학년 과정에서는 건축 전반의 개론적인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고 2학년 과정부터는 전공 심화과정으로 각종 건축이론을 교육하고 여기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건축설계에 반영시키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설계는 학년별 주제(1학년: 아이디어와 표현/ 2학년: 형태와 공간, 건축과 프로그램/ 3학년: 건축과 역사, 환경과 형태/ 4학년: 통합설계과정으로서 건축과 기술, 건축과 도시/ 5학년: 건축과 사회, 건축과 실무)에 따라 매 학기 세부프로젝트를 정하여 스튜디오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매 학기 종강 전에는 전제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 한 학기 동안 진행했던 설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크리틱을 실시함으로써 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있다. 이론과 공학관련 과목들은 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년별로 적절하게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이론적 배경을 갖추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학생들은 정규적인 교과과정 외에도 학과에서 주최하는 정기적인 학술세미나와 국내외 건축담사, 교수연구실과 연계한 프로젝트 참여, 사회봉사,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기개발을 통해 건축가로서 꿈을 키우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봉사 활동

우리 과에서는 건축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

해 직접 몸과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의 인솔 하에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7년부터 (사)한국농촌건축학회가 주관하는 '농어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자원봉사'에 매년 3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인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밖에도 학생들은 대학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또는 도덕적 실천 덕목을 수행한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도의실천인증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나눔에 대한 소중함을 경험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교과 과정에 '건축과 사회봉사' 과목을 신설하였으며, 봉사를 통해 인간과 자연에 대한 도덕성과 건축가로서의 전문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전통을 자랑하는 동아리와 선후배간의 교류

30여 년의 오랜 전통에 걸맞게 현재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졸업 동문들은 우리 과의 힘이 자랑이다. 지금까지 약 200여 명의 동문들이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전라북도 내 대학에서 가장 많은 건축사를 배출하였으며, 현재 전북 지역에서만 80여 명의 건축사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동문 건축사무소들과 MOU를 체결하여 제도적으로 인턴 과정을 활성화할 계획에 있으며 지금도 동문회에서는 동문장학금을 재학생들에게 수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과 학술동아리는 한울자리, 라인건축연구회, 주거건축연구회, C-GRAPH, 피노키오 등이 있다. 이 동아리들은 창립 된 지 최소 22년이 넘으며 일부 동아리들은 건축과의 역사와 함께하는 전통을 자랑한다. 봄에는 전체 동아리들이 모여 체육대회를 하면서 서로 친목을 다지고, 여름에는 동아리 연합 학술대회를 통해 서로의 실력을 겨룬다. 각자의 동아리들은 건축담사와 작품공모전 참여 등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며, 매년 창립제와 연합MT를 개최하여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공모전 수상 능력과 높은 취업률

우리 과 학생들은 '한국건축문화대상', '도쿄모모코리 아디자인공모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강구조건축 설계공모전' 등 전국대회 건축설계 공모전에 매년 다수의 학생들이 입상하고 있다. 특히 2009년도에는 Architectum에서 주관하는 'Buenos Aires 2009' 국제 설계 공모전에서 3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력을 기반으로 졸업 후에는 대부분이 중·대형 설계 사무소에 취업하고 있다. 5년제 변경 후 최초로 졸업생을 배출한 2008년도 이후 평균 취업률은 86%에 이르며 취업률 100%를 향해 교수와 학생들 모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년 중에 설계교수 총원과 1학년부터 전용설계실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실 공간 재배치 및 리

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과 1대1의 책임있는 학생 생활지도를 통해 지역을 뛰어넘은 제2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학과장 : 홍승재 교수 sjhong@wku.ac.kr
학과사무실 : 063-850-6704



졸업 작품 전시회



학년별 설계과제 전시



설계 과제 크리틱



자원봉사 활동



건축물 담사(마주 출판 단지)



전통건축 실습 및 도면화



전통 건축 실습 후 모형 작업

광주대학교 'Together Gwangju' 최우수작

— 광주광역시 '관문아이디어 공모' 심사결과



광주광역시 관문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Together Gwangju_광주대학교 박자영, 김중남, 양승준, 이상현, 오아름 공동작품

광주광역시 '도시 관문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우수 1점, 우수 3점, 장려 10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는데, 광주대학교 박자영 등 5명이 공동 제출한 'Together Gwangju(투게더 광주_사진)'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고, 'Urban Interlocking(어반 인터로킹, 이혼회)이 장려작으로 뽑혔다.

최우수작은 광주역 광장을 공원화하고 지하차도화하는 등 관문을 교통과 연계해 공간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명사로 탈바꿈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역을 시민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아이디어 공모에 이어 도시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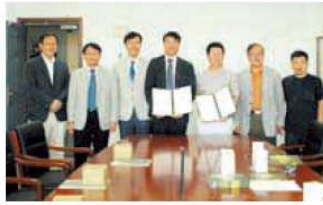
인 관련 연구소, 대학, 관련기업체, 건축사 등이 참여해 전문가 공모를 통한 전략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문 이미지 개선사업을 본격적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의 관문을 어떻게 하면 광주다운 이미지로 가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실시된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57점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는데, 실무디자인과들의 경쟁에서 광주대학교 학생들이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이훈희 학생기자 hh3759@naver.com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베이징공대와 자매결연

— 베이징공업대학 건축성시학원과 상호 교류 협력키로 해



전남대학교 건축학부(학부장 오세규 교수)와 베이징공업대학 건축성시학원(학원장 대경 교수)이 지난 7월 8일 베이징에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였다.

베이징공업대학 건축학과는 1960년에 개교하여 공과·이과·문과가 결합된 종합대학이다. 16개 2급대학(단과대학)에 43개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중국 100대 중점대학 중 하나로 유학생의 지원 또한 활발한 편이다.

이날 정식 협정을 계기로 양국은 각국의 문화교류와 건축문화의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학생연수 등의 상호교류 기반을 다지기로 하였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승정 학생기자 rozen_1@naver.com

원광대학교 독거노인 주택보수 봉사활동

— 건축학과 교수 및 학생 19명 약 2주간 참가해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윤종렬 교수와 건축학과 학생 18명은 2010년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의 독거노인 노후주택을 보수하는 건축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4개조로 나뉘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짝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 바쁘게 작업을 진행하였다.

고 바르고 꾸미며, 때로는 힘겨워 하고, 때로는 뿌듯함을 느꼈다.

힘들고 바쁜 와중에서도 매일 저녁에는 그 날의 작업 상황과 소감을 서로 나누며 봉사의 의미와 함께 건축학도로서의 성취감, 자부심, 만족감 등을 만끽하였다. 그것은 점점 알파해져만 가는 인성과 사회의 불협화음에 진저리치는 젊은이로서의 최소한의 정체성이었다.

우리는 우리대로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는데, 되레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감사와 인심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땅의 대가로 가슴에 한 쌍의 희망날개를 품고 돌아왔다.

익숙하지 못한 손놀림으로 쌓고 비비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서민식 학생기자 archiilly@nate.com

전남대학교, IFoU 여름학교 2010 참여

— 건축학부 교수 및 학생 7명 약 2주간 참여해



IFoU 여름학교 Group 5 수료증 수여식 중

지난 7월 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International Forum on Urbanism (이하 IFoU) 여름학교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교수 및 학생 7명이 참여하였다.

IFoU는 도시계획분야의 국제협력력을 강화하는 업무를 가진 대학, 연구소, 지식센터의 연계조직으로, 건설 환경-디자인과 관련 있는 정부부처와 전문가관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번 IFoU 여름학교는 국제적인 합동디자인스튜디오의

형식으로, 베이징공업대학(BJUT)과 델프트 공과대학(TU Delft)의 협력에 의해 개최되었다.

주제는 '베이징의 고속 도시화와 도시 계획의 역할'이었다. 특히 도시공간의 질에 초점을 두었고 서로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참여자들은 몇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도시 계획안의 발전과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각 소주제는 도시 형태와 단편화 보행중심공간과 공공 공간 도시 재생과 커뮤니티 공간 도시 확장과 마을 도시 간선도로 재생계의 5가지였다. 튜터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50여 명의 참여자는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도시계획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분석 자료를 토대로 디자인과 정책을 제안하였다.

IFoU와 여름학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ifou.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승정 학생기자 rozen_1@naver.com

(주)현대 건축사 사무소
디자인그룹 현대건축
건축사 / 조원성 강성철 조원수

062)528-0101 / 266-7800
광주 북구 신안동 133-2

HYUNDAI DESIGN
ARCHITECTURE GROUP

제7회 광주건축·도시 문화제 사진 공모전

- 출품작품**
 - 작품내용 : 아름다운 도시 경관(건축물+구조물+조경+공공미술)
- 출품자격**
 - 응모자격 : 건축과 사진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인
- 작품접수**
 - 접수기간 : 2010.9.1(수) ~ 2010.9.15(수) PM 6:00(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작품규격 : 11" X 14" 사이즈 사진 (규격 엄수)
 - 제출서류 : 필름 원본 또는 JPE 원본 파일(사이즈 800X1,000 Pixel 2MB 이상)과 참가신청서
 - 등 록 비 : 없음 (1인 3작품 이내)
 - ※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에서 다운로드 작성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 (4층)
Tel. 062)521-0025~6
- 입상작 발표**
 - 2010. 10. 23 (금)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게재 및 개별 통지
 - 시상일시 : 추후공지
- 시 상**
 - ▶ 최우수상(1명)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우수상(2명)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 장려상(4명)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입선(다수) : 상장 및 기념품
- 전 시**
 - 전시기간 : 2010.11.4(목) ~ 11.7(일)
 - 전시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4층) 전시실
- 기타사항**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상작의 작품과 필름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사에 귀속됩니다.
 - 출품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을 지야 합니다.
 - 타 공모전 입상작으로 밝혀질 경우 입상이 취소(상장 및 상금은 추후에 반환됩니다).
- 주최 및 주관**
 - 주 최 : 광주광역시
 - 주 관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Tel. 062)521-0025~6 E-Mail : gjkira@empal.com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GJC 광주건축단체연합회

광주 근대문화의 보고(寶庫) "남구 양림동!"

본지에서는 건축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문화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건축문화 포럼'은 크게 강연회와 건축탐방으로 꾸밀 예정이다. 지난 5월 27일에 있었던 조선대학교 강동국 교수의 '미국의 건축대학과 현대 건축물'이라는 주제의 강연회에 이어, 지난 7월 31일은 광주 근대문화의 보고인 양림동을 대상으로 건축탐방이 시범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번 '건축탐방'은 운영방법을 점검하기 위해 본지 기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광주·전남·전북의 건축사기자와 학생기자들이 다수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앞으로 '건축탐방'은 건축인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건축문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참가자들의 소감을 지면에 소개함으로써 '건축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양림동 건축탐방에 참여한 대학기자들의 소감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관계에 대한 의문

광주라는 도시는 나에게 아직은 낯선 도시이다. 처음에 양림동이라는 곳을 간다고 하였을 때 "나에게 어떤 것을 남길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어느 동네에서 느꼈던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처럼 시작부터 아쉬움이 생겼다.

그러나 문화해설사(이춘홍)와 같이 답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큰 착각을 했다는 것이었다. 조그마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능선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조선시대 후기 상류층과 왼쪽은 신(新)문화를 가지고 온 선교사들이 들어와 포교활동을 함으로써 보수와 진보의 양존하고 서로간이 영향을 주어 독특한 문화를 빛낸 자리였다.

그런다 문득 학교에서 설계하며 가졌던 의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전에는 신도심이 생겨 원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감으로 인해 공동화 현상과 건물들의 노후화문제가 생기면 원도심을 다시 신도심화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최근에는 서로의 특성을 살려 공생관계로 발전해나가는 추세이다.



오젠기념각(광주유형문화재 제26호) 앞에서

이러한 추세에 적합한 조건과 적당한 개발로 인해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천도 현재 원도심과 신도심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도심의 경우 선교사 길과 순천읍성 터가 있지만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제로에 가깝다. 충분한 재미 있는 요소임에도 활용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것 같다. 물론 이밖에도 여러 도시의 원도심 문제는 많은 관계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 같다.

순천대학교 건축학과 이태현 학생기자

전북 토박이, 양림동에 다녀오다

양림동은 서양과 광주가 처음 만난 곳이라고 한다. 양림동은 광주천 건너편 계림동(동구)과 함께 광주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이었다고 한다. 무등산 아래서 이들 지역을 뺀 대부분이 논밭이었다는 기록만 봐도 양림동은 일찍부터 택지로 주목받았다. 지명은 버드나무가 많은 곳이라 '양림(楊林)'이라 붙여졌다고 한다. 양림동은 바로 그 양림산 아래 등지를 틀고 있다.

양림동은 20세기 초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들어와 정착한 동네다. 자연스럽게 '광주의 예루살렘', '서양촌'으로 불리며 서양식 교육·복지·의료·예술 활동의 중심지가 됐다. 광주기독교병원, 호남신학대, 네덜란드 양식으로 지어진 수피아여고 등 개화기 건축이 그대로 남아 있다.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축물인 우



탐방객들로 붐비는 이정우 가옥

일선(Wilson) 선교사 사택(1908년)은 광주시기별물 15호다. 지어질 당시 처음으로 서양식 건축물을 접했을 선조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1898년 들어와 활동한 오젠목사 기념관도 네덜란드 풍으로 지어져 보존되고 있다. 다른 벽돌건물과 달리 붉은 벽돌이 아닌 회색 벽돌로 지어진 점이 이색적으로 다가온다. 내부를 보면 기독교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여 나타난 '1자형' 구조를 감상할 수 있다.

이 동네의 역사적 품위는 전통가옥 2채에서 우러나온다. 그 중 하나가 이정우 가옥이다. 동서방향을 비긴 축선을 따라 대문간, 공간채, 행랑채, 사랑채, 인채 등이 이어져 있다. 안채가 광주시 민속자료 1호다. 1889년에 지어진 집이다. 일본문화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정우 가옥은 2009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 미술인 470명, 기업 370여 곳이 나서서 이들 주택과 골목 등에서 역사와 현대가 함께 깃들여 있는 각종 디자인 제품을 내놓고 주목을 받았다.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김소희 학생기자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서민석 학생기자

제7회 광주건축·도시 문화제 그림 그리기대회

1. 그림내용
- 건축·도시 경관을 주제로 한 그림(건축물+구조물+조경+공목집)

2. 출품자격
-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 및 초·중 재학생

3. 작품접수
- 일 시 : 2010.8.1(수) ~ 2010.8.15(수) PM 6:00(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4. 제출방법
- 참가신청서(신청 양식)와 그림을 함께 제출
- 신청서 양식은 <http://gjkira.kira.or.kr>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500-878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4층)
Tel. 062)521-0025~6

5. 제출규격
- 규 격 : 4절지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8절지도 가능)

6. 참가부분
- 수채화, 파스텔화, 크레파사화

7. 시상내역
- 수상작 발표 : 2010. 10. 15(금) <http://gjkira.kira.or.kr>를 통하여 발표
- 시상식 : 2010. 11월 중 (개별 통지)
- 시 상 : ① 초·중등부
▶ 최고상(3점) : 20만원/점(광주광역시교육감상)
▶ 금 상(4점) : 15만원/점 ▶ 은 상(8점) : 10만원/점
▶ 동 상(15점) : 5만원/점 ▶ 입 선(약간명) : 기념품
② 유치부
▶ 금 상(2점) : 10만원/점 ▶ 은 상(3점) : 5만원/점
▶ 동 상(4점) : 3만원/점 ▶ 입 선(약간명) : 기념품

8. 기타사항
- 참가비는 없습니다.
- 접수된 모든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선작품은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2010.11.4 ~ 11.7)김대중컨벤션센터) 기간 중 전시

9. 주최 및 주관
- 주 최 : 광주광역시
- 주 관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500-878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4층)
Tel. 062)521-0025~6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GJCA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7회 광주건축·도시 문화제 UCC 공모전

1. 공모주제
- 광주건축 도시이야기 (도시의 역사관, 도시디자인과 공간, 일상의 도시)

2. 용도지역
- 자격제한 없음, 개인 혹은 팀(2인 이하)

3. 용도규격
- 해상도 : 640x480 Pixel / 24fps 이상
- 길 이 : 3분 이내 분량
- 출품자료 : 파일 형식은 AVI, MPEG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동영상 파일명 및 제목 제작지(본인) 명시
- 용 량 : 100MB 이내로 제작

4. 작품접수
- 제출기간 : 2010. 9. 1(수) ~ 9. 30(목) PM6:00(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500-878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 4층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와 CD
- 통 목 비 : 없음
※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에서 다운로드 작성

5. 시상내역
- 시상일시 : 추후공지
- 시 상 : ▶ 최상(1점)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금상(1점) : 상장 및 상금 70만원
▶ 은상(2점)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동상(3점) : 상장 및 상금 30만원

6. 심사 및 발표
-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운영위원회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및 평가
- 심사위원 및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음
- 발표 : 2010. 10. 15(금)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7. 전 시
- 기 간 : 2010. 11. 4 (목) ~ 11. 7 (일)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1층) 전시실

8. 기타사항
- 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주관기관에 귀속되며, 작품은 반환 불가
- 저작권 문제 등 출품작품 관련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가 부담
- 긴 공모전 입상작 및 포털에 게시될 경우 입상이 취소되고 상금 및 상금은 주최측에 반환
- 공모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9. 주최 및 주관
- 주 최 : 광주광역시
- 주 관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500-878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4층)
Tel. 062)521-0025~6, Fax. 062)528-0026, E-Mail : gjkira@empal.com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GJCA 광주건축단체연합회

법령소식

● 국토해양부 최근 공포 법령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7월8일부터 최근까지 10여개의 법령을, 2개의 훈령·예규·고시를 일부개정·전부개정·제정 등의 이유로 새롭게 공포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의 최근공포법령이나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의 법령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건축사법」 - 일부개정 [법률 제10392호, 건축사법, 시행 2011. 1. 24]

● 개정이유

건축사의 업무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상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건축사협회가 취급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에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을 추가하여 건축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건축사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공공부문 발주사업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함(제20조제3항 신설).
- 나.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무를 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 중 현행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제23조제8항제3호).
- 다.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도 가능하도록 함(제31조의2).

「법령소식 정정기사」

건축문화사랑 제8호(2010년 7월 10일 발행) 12면에 게재된 바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255호, 시행 2010. 7. 6) 개정 내용 중 아래 표를 관보의 오기로 인하여 정정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55호, 시행 2010. 7. 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용을 삭제
-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
- 주택단지에는 전용면적당 아래 비율로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으로 설치

구 분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주차장설치기준(대/㎡)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	그 밖의 지역
제8호 내용 (2010.7.10)	85 이하	1/75	1/75	1/80	1/85
	85 초과	1/65	1/65	1/70	1/75
정정 내용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형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

광주건축사회, 제1기 '건축사 Academy' 시행

- 올해 9월 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격주 진행 계획

광주건축사회에서 회원사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들에게 건축 및 관련 분야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한 제1기 '건축사 Academy'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1기 '건축사 Academy' 교육이수자는 회원 인준교육시간으로 인정되며 각종 추천 및 위원 위촉에 우선하여 선정하고 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교부할 방침이다.

■ 2010년 Academy 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월/일(요일)	시 간	내 용	강 사	비 고
9/3 (금) 첫째주	10:00~12:30 (150분)	• 설계 가치에 대하여	승효상 건축사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9/16 (목) 셋째주	15:00~16:30 (90분)	• 건축사관(윤리의식, 철학 등)	신남수 교수	전남대학교
	16:30~18:00 (90분)	•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기준	이창용 건축사	(주)지이에 건축사사무소
10/6 (수) 첫째주	15:00~16:30 (90분)	• 설계업 마케팅	정성창 교수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
	16:30~18:00 (90분)	• 재무운영과 인적관리에 대하여	안용훈 사무관	광주광역시
10/21 (목) 셋째주	15:00~18:00 (180분)	• 프로젝트 수행 방법과 보수 • 현상업무 진행 관련 이론과 실무 • 건축 관련 법규 해석	박유진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시간
11/11 (목) 둘째주	15:00~18:00 (180분)	• 기술과 정보시스템 관리(BIM)	윤두영 소장	비엔아이에스
11/25 (목) 넷째주	15:00~16:30 (90분)	•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 (개개건축에서 건축군으로 그리고 도시로의 도전)	조용준 교수	조선대학교
	16:30~18:00 (90분)	• 계획-기초설계 서비스 • 설계-공사관련 서비스 • 운영-유지관리 서비스	김광재 소장	현대건설
12/2 (목) 첫째주	15:00~16:30 (90분)	• 친환경 건축설계 방법론	오세규 교수	전남대학교
	16:30~18:00 (90분)	• 단지계획이론	황해주 교수	목포대학교
12/16 (목) 셋째주	15:00~16:30 (90분)	• 디자인 및 색채이론	김현중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16:30~18:00 (90분)	• 계약서 작성 및 법적 이해	윤춘주 변호사	법부법인서석
2011. 1/15 (토) 둘째주	전 일	• 건축답사 : 우수 건축물 대상 •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견학 • 사회참여 프로젝트 수행	정광민 건축사	서로 건축사사무소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서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화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범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신정철 전남회장 김강수 전북회장 이성범
편집인 박홍근
전담기자 곽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형, 정태호,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장성호, 송명옥, 김기영, 정영범, 정관성, 박종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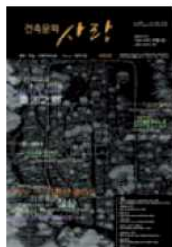


표 / 지 / 설 / 명

「전주부 지도」는 전주시 시도유형문화재 제 80호로 지금의 전주시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전주부 성 내부를 그린 4쪽의 대형 병풍식 그림이다. 옛 전주부의 성문, 관가의 배치, 학교, 서원, 수목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전주부의 도시상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한 전라북도 전 주시의 발전상을 글로서 병행 표기하여, 현재의 도시상 과 함께 미래의 도시상을 기획하여 본다.

자료: 전주부 지도(국립전주박물관 제공)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정 광 민 | 건축사사무소 서로 50만원
최 경 양 | 한샘 건축사사무소 50만원
윤 춘 주 | 법무법인 서석 20만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향)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광주건축사회, 구별(동별)간담회 개최

— 설계용역비 정상화 방안 등 주요 내용 발표로 진행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7월 27일부터 약 일주일간 광주 지역 전회원을 대상으로 구별(동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첫날, 금호1동 동사무소에서 열린 서구(차)회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광주지역 5개 구역별로 간담회가 추진됐으며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의 주요 내용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설계용역비 정상화 방안과 더불어 건축사사무소 그룹화 신청서 접수결과 및 자원계획, 디자인자문 신청 운영방법 개선방안, 업무대행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이 발표되었다.

한편 간담회 마지막날, 광주건축사회관 5층에서 열린 남구, 광산구, 서구(2차)간담회에서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을 일일이 직접 찾아 가더라도 우리



의 생존을 위한 모두의 중지를 반드시 알리고 설득하겠다"며 발표된 주요 내용에 관한 실행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이와 더불어 광주건축사회에서는 설계용역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설계회의서를 제정하여 활용운동을 전개키로 하였으며 건축설계회의서에 관한 내용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박승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전북건축사회 창립 45주년 '건축문화축제' 개최

— 9월 1일부터 4일까지 건축작품전시회 및 초청강연회 진행

전북건축사회의 협회 창립 45주년 기념 '건축문화축제'가 9월 1일 14시, 건축작품전시회를 시작으로 개최된다.

9월 1일 14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리는 건축작품전시회는 총 54점의 작품(독일 20작품, 중국 강소성 14작품, 전북건축사회원 20작품)이 전시될 예정으로 9월 4일까지 4일간 전북대 삼성문화관 전시실(1층)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건축문화축제' 행사 일환으로 개막 당일 15시에, 초청강연회가 전북대 진수당 바오루홀(2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북건축사회는 9월 2일 18시 30분, 전주향교에서 협회 창립 45주년 기념식을 갖고 건축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건축사 업무 및 제도 개선에 공로가 있는 공직자를 표창할 계획이다.

광주건축사회, 2010년도 하계야유회 가져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7월 16일 전남 구례 문수골에서 역대회장과 임원 등 34명을 대상으로 2010년도 하계야유회를 진행하였다. 매년 광주건축사회는 하계야유회를 개최하여 선·후배 건축사간의 우애를 다지고, 건축사회의 발전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심포지엄-초청강연 개최

— 오는 9월 7일 15시, 부산대 건축학과 우신구 교수 강연 예정

광주광역시와 주최하고 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제7회 건축·도시문화제 행사 일환인 건축문화 심포지엄-초청강연Ⅱ 가 오는 9월 7일 15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건축문화 심포지엄은 문화제 기간이 아닌 연중 총 3회로 부산 개최로 함께 따라 열리게 됨으로써 지난 6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

양대학교 건축학부 토미이 마사노리 교수의 초청강연Ⅰ 에 이어 개최된다.

초청강연Ⅱ는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우신구 교수의 '부산 광복동 거리만들기'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마지막 건축문화 심포지엄-초청강연Ⅲ은 송호상 건축사의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승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News 광주 건축계 동정

***입회**
- 장근영 건축사/ 씨에이치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치평동 1187-2번지
월계수타운 410호

***전출**
- 정영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현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92-6

News 전남 건축계 동정

***입회**
- 김광평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세움
· 전남 여수시 학동 99-1번지

- 김낙현 건축사 /
현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102-11

***변경 (소재지 변경)**
- 장진영 건축사 / 디딤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중앙동 64-8(4층)
- 전용수 건축사 / 옥당 건축사사무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338-2(1층)

***부고**
- 임종기 건축사 / (주)대주 건축사사무소
· 본인별세 - 7월 15일
- 고희순 건축사 / 고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7월 24일

News 건축관련 인사발령

***광주시청 (승진)**
- 강백룡 건축주태과 → 건축주태과장
- 유금배 계약심사과 → 사회복지과

***광주시청 (전보)**
- 송영환 건축주태과장 →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장
- 이규남 사회복지과 → 문화수도지원과
- 박주욱 체육지원과 → 도시재생과
- 서병호 문화수도지원과 → 건축주태과

***광주북구청 (전보)**
- 박종원 도시개발과장 → 건축과장

News 전북 건축계 동정

***입회**
- 김성규 건축사 / 나우 건축사사무소
·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53-3

***전입**
- 정철봉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원건축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4-43

***변경 (소재지 변경)**
- 오오안 건축사 / 심호종합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13-8
- 조익환 건축사 / 성도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629-5

***변경 (상호 및 소재지 변경)**
- 강중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소리재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33-8

***부고**
- 국경득 건축사 / 초원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7월 10일(토)
- 이상돈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림주
· 빙모상 - 7월 29일(목)
- 정수환 건축사 / 가람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7월 30일(금)
- 홍인표 건축사 / 홍인 건축사사무소
· 본인별세 - 8월 8일(일)

***기타**
- 류충렬 건축사 / 금만 건축사사무소
· 7월 17일(토) 사무소 개소식

디자인자문제도 변경에 따른 포토샵 강좌 진행

— 광주건축사회, 추후에도 포토샵 강좌 마련할 계획

광주건축사회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수, 목요일 디자인자문신청제도 변경에 따른 포토샵 강좌가 열렸다.

총 3차로 나누어 열린 이번 강좌는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이사의 '포토샵을 통한

도면 작성방법'이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토샵 강좌는 모집 기간이 마감됐음에도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으며 광주건축사회는 추후에도 공지를 통해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승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News 광주 동호회 소식



광주 동호회 소식
골 프 동 호 회
늬 시 동 호 회
등 산 동 호 회
미 술 동 호 회
바 독 동 호 회
축 구 동 호 회

지난 2004년 시작된 광주건축사 축구동호회는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매 주말 광주 상무구장에서 정례적으로 모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정의를 "신체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이면서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인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운동을 통하여 일상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건축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논의하면서 선·후배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고 있다. 올해 초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대회(협회 회장배)에서 우승함으로써 전국대회 3회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루므로 명실공히 전국건축사 최고의 명문 FC로 자리매김 되어있다.

광주건축사 축구동호회 파이팅!

- ▶ 향후 연간행사계획(2010)
· 8월 전지훈련 및 야유회(신안안좌)
· 10월 전국대회(서울)
· 12월 정기총회

심상봉 건축사 (광주 축구동호회 회장)

● 수필

새로운.. 새로운 도전...

조성진
주부/광주 서구 금호동

"서늘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여유도 허락치 않는 요즘. 큰 딸 먹고 편지를 보냈을 친구에게 나 또한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짧은 글 띄워본다.

지금 힘들고 현실에 지쳐 있을 우리에게 작은 위안을 나누자.

주어진 일에 충실 한다는 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쾌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다음을 준비하는 것.

또 좌절 비슷한 감정도 경험해 보고 힘을 내어 다시 해 보겠다는 재도전의 자신감도 느껴 보는 것.

주제말 다를 뿐 같은 길을 다시 걸으며 또 다른 느낌과 새로움, 실패,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것.

그리고 추억을 남기는 것, 다시 회상하는 것.....

지금 당장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 현실에서 빠져 빠져 나오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다. 그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얻었다면-다양 극단적인 것 제외-그것으로도 충분히 위안을 얻고 새로울 수 있지 않을까. 피할 수 없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순리대로 따라보자.

종착지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만족이든 후회든 어느 하나에 느끼는 감정을 기쁘게 새겨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재도전이든 새로운 일이지 않겠어...

1999년 10월 18일 월

며칠 전 파일 정리를 하다 대하 다닐 적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를 발견했다.

어릴 적 두서없이 쓴 글이 재밌기도 하고 내가 이런 생각도 하며 그 때를 보냈었구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는 이도 없고 친구도 없이 광주에 올라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야간대학에 입학한 뒤, 회사와 학교 생활을 병행하다 문득 항수병에 허우적일 때면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름 스스로를 다독이며 위안을 삼았었다, 그 때는...

어느새 시간은 흘러 나는 한 남자의 아내, 세 아이의 엄마가 되어있다. 와우~!

지금의 나는 생각만 바쁘다. 출근한 남편, 유치원에 간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엉켜있다. 내 시간에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는 조급

함에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복잡하다. 그런데 십년이 지난 편지 하나가 나에게 자극제가 되었다. 친구에게 위안을 주고 또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보냈던 편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슴속 또 다른 시작이란 싹을 틔워 놓고 있다.

'주어진 일에 충실하자' 나에게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이란 무사 아이들 돌봄과 남편 내조가 가장 큰 일이다. 그런데 결혼 이후로 누구누구의 엄마로 평범한 아줌마로 나를 잊고 지나다 대학시절 전공이었던 디자인 관련분야를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 내 시간적 여유도 생겼고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가 디딤돌이 되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내가 주어진 새로움 일에 충실할 일이 생긴 것이다.

8월이면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하하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난 당연히 열심히 것이고 4개월 동안 힘써 줄 우리 남편 행복남에게 미리 고맙다.



Book



아트디렉션 안상수 『안상수 (BABA PROJECT)』 안그래픽스/2008

정명환 건축사
디에이건축사사무소



내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꽂혀 있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안 그래 픽 스 에 서 2008년 펴낸 이 책은 「바바 프로젝트」라는 국내 디자인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묶은 디자인 총서 중 하나로 그래픽디자이너이자 타이포그래피인 안

상수의 작업을 실은 작품집이다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인 안상수는 1985년 '안상수체'를 디자인하여 한글의 탈네모를 흐름을 주도 하였으며 이후 이상체, 미르체, 마노체를 디자인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작가이다. 한글의 정체성과 과학성 그리고 예술성을 실험을 통해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절제와 여백의 미니멀한 건축을 보는 듯 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넘길 때 마치 단순한 건축속에 내재되어 있는 함축적이며 풍요

로운 공간을 걷는 듯 했다.

- 해변의 폭탄물고기 bomb-fish on the seashore
- 한글 만다라 hangeul mandala
- 서울건축학교 seoul school of architecture
- 문자도 letter work
- 곱팡이 기습 surprise at gompangi
- 관음얼굴 face of gwaneum
- 스무 살 나무처럼 like a twenty-year-old tree
- 한글 담쟁이 hangeul iris
- 김지하, "탈춤의 민족미학" kim jiha, "aesthetics of mask dance"

디자인 평론가 최범은 책속에서 안상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상수의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한글 실험과 글자꼴 구축술의 결합이다. 실험, 창조, 구축술, 한글이라는 재료와 타이포그래피라는 구조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그래픽 세계를 구축해가는 타입 아키텍트, 안상수는 한글 건축가이다.

장르를 넘나드는 예술의 영역은 그 시작이 하나일까? 이 책을 통해 보다 넓은 소통과 사고의 확장을 기대한다.

● 시

배치도

문창식 건축사
우리 건축사사무소

마음에

초록빛 주 건물 들어 앉히고

목련 한 그루 뿌리내릴

좁장한 꽃밭 만든다

주차장 주인입로는

좁아서 부대끼다

부진입로 어슬렁대다

옆집 일조권을 생각해 보고

창 열면 앞산은 어떻게 보일까

풍수도 고려한다

싱크대 구멍물, 오장육부 훑어낸 찌꺼기

무사히 걸러 내릴 정화조 위치

고개 고덕이며 검토한다

당신이 내게로 오기 편할

진입로와

내 마음 구석구석 흰히 보여줄

방과 조명 그리고

오장육부를 적절히 배치한다.

건축사 Gallery



갈매기의 꿈

바닷가 마을이나 포구에서 갈매기의 자유로운 날개짓이나 한가로이 부유하는 모습이 없는 풍경이라면 부적 허전하지않을까? 염산포구에서 갈매기와 함께 날아보다.

선기택 건축사 작

Photo



어촌의 새벽

시월이지만 너무도 추웠던 거금도 오천마을 선착장의 새벽일출 바닷가에서 늘 보던 작은 어촌이지만 시간과 빛에 따라 뷰파인더로 보는 세상은 늘 새롭고 다채롭다.

촬영지,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오천마을 동촌 선착장 박종호 건축사 기자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무등의 비로와
1등으로
세계를
이끌어!

알고 계셨나요?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은 우리고장 광주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광주전자주식회사는 1989년 광주 하남산업단지에 설립된 광주지역 독립법인입니다. 2조원 규모의 호남제일기업으로써 고용인력증대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있으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활동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환경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광주전자는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보호 한다는 신념아래 전자녹색경영을 통한 자연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하남산업단지 내 삼성광주전자

저렴한 유지비+인테리어까지 생각한 1:1 맞춤바람은
오직 **내고장 광주기업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 뿐입니다.



우리지역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 전문점

(유)삼성무동특판 062)365-6900	(유)에이원공조시스템 062)681-8504	순천 동부이앤에스(주) 061)722-0850	전남지역 나주 (주)하이옥스 061)336-0071~2
(주)센도리 062)268-5811	(주)오성에어텍 062)971-7742	순천 티에이엔스(주) 061)721-4798	전주 디지털공조 063)277-7999
광주지역 (주)한국엠이씨 062)521-2341~2	(주)삼성공조시스템 062)952-0048	전남지역 여수 삼성냉열시스템(주) 061)653-2025	전주 (유)삼성에스에이비공조 063)226-0419
(주)에이엔비 062)603-4787	그린공조시스템 062)385-7300	광양 (주)디에스시스템 061)795-6631	전북지역 전주 (유)일신공영 063)212-9131
(유)하우엔지니어링 062)511-0006		목포 (주)한빛시스템 061)247-9500	전주 (유)정연엔지니어링 063)244-7777
			군산 (유)삼성특판공조 063)451-7800
			익산 (유)한국설비 063)832-7152
			익산 두일공조시스템(주) 063)841-5800
			익산 삼성동생에어컨(주) 063)855-8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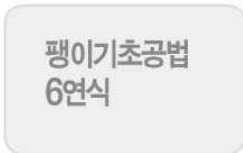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획득
기술혁신 중소기업 (INNO-BIZ) 인증
벤처기업 등록

www.bs-base.co.kr

탄탄하고 경제적인 기초공사 - 반석기초이앤씨(주)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팽이기초공법 (6연식형 / 현장타설형)



팽이기초공법
6연식



동신고 체육관



팽이기초공법
현장타설형



잠신 중학교



군산인력개발원



전남대 학군단



105 포병대



서정동 주민센터

마이크로파일 공법



장성 문화예술회관



연천초

그라우팅 공법



반석기초이앤씨(주) 대표이사 문 형 록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87-1 아이비타워 108호 TEL. 031)577-1673 FAX. 031) 577-1674